

##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자



김 태 환

계림농장 대표/본지 편집위원

최근 국내외의 많은 변화 중 몇 가지를 짚어 본다.

### ❖ 해외로부터의 변화

첫째, 국제 원유 가격이 대폭 상승하고 있다.

80불을 넘어 섰고 100불 돌파는 시간문제이며 200불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견하는 분석가들도 있다고 한다. 각국의 상황에 따라 조력, 지력, 풍력, 태양열, 가축분뇨의 에너지 자원화 등 대체 에너지 개발이 활발하게 재검토되어 증액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곡물을 이용한 Bio-Energy가 상용화되고 있는 실정이 되었다. 연료비가 많이 들고 곡물을 주로 사료 원료로 하는 우리 양계 업계로서는 연료비 대폭 상승 및 사료 가격 대폭 인상에 따른 감당해 내기 어려운 생산비의 상승이 우려된다.

사용하는 연료의 교체, 시설 투자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한EU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몇몇 나라와 FTA 체결이 이루어져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견 되는 바, 우리 업계는 이제 대세에 거스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직시하고, 예상되는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로 육우 업계는 물론, 돈육 업계에 있어서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는 현 실정을 볼 때, 육계 업계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이제 스스로를 보호하고 권익을 지켜 내기 위해서 해야만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셋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위협이 엄존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HPAI가 창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도 산발적으로 발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계절적으로 우려가 커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철저한 차단 방역과 함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위기 대처 방안을 범 업계가 공동으로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03년도 처음 발생시와 전년 말 재발생을 통해 우리 업계의 학습 효과를 냉철히 분석하여 관련 업계 모두가 교감할 수 있는 대책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 국내에서의 변화

첫째, 양계업계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및 인식 수준이 크게 변하고 있다.

몇 년전 일본에서는 대형 식품회사가 소비자를 무시한 처사로 인해 결국 문을 닫고 말았다.

최근 국내에서도 상장회사인 M 계열화업체가 생산, 판매한 닭고기에서 검출되는 안되는 합성항균물질이 검출되어 큰 물의를 일으켰었다. 최근 소비자 단체 및 언론이 소비자의 높은 요구 수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생산자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소비자와의 신뢰를 높이게 하여 발전적인 결과를 기대하게 하는 순기능적인 측면이 크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항생물질 잔류 검사에서 가장 직접적인 원인 제공 단계인 육계 사육 농가(산란실용계)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제는 종계 사육 농장들도 항생제 및 합성 항균제 사용 제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국내 육계 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예상된다.

그 동안 변화, 발전되어 온 육계 산업에 큰 변화가 생겼다. M계열화 업체가 원종계 사업에 진출하여 종계 생산을 시작함으로써 향후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그 동안 육계 업계에 적용되어온 단순한 과부족에 의한 경기 부침이 아닌 한 차원 높은 산업 구조 및 새로운 경제 논리가 적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정부 정책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간의 정부 정책이 농민 보호차원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농업 보호 및 지원 차원의 정책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농지법 개정, 일부 축산 농가 폐업 보상제도 검토 등 이전과는 다른 정책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 맺는말

이제 우리 업계는 일시적으로는 내우외환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그러나 위기는 위기일 뿐 기회로 작용하는 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가 무엇보다 먼저 파이를 지키고 키우는 일을 중시해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1인당 닭고기 소비를 2배 이상 늘리기 위해, 1인당 계란 소비를 300개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할 일이 너무 많다. 또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다. **양계**